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4호 고달사지 부도



폐사지의 봄

김유선

육탈한 몸 어느 벼가
 헤묵산을 빗머로 두르시는가
 비오는 날에도 빛 밝아서
 캄캄한 나도 함장하고 싶네
 누구신가, 벼를벼름 더듬는 질문에
 없던 것이니 이름도 묻지 말라시네
 그 답도 묵언이네
 있음도 없음도 하나라고
 사망 30리 큰 절을애초의 초지로 돌려놓고
 고달사 빈터가 아흔가부좌 트시네
 연꽃잎 없어 덮어도
 가리지 못하는 몸, 마음, 말의 죄업 날날
 제 살에 용비늘로 새기셨네
 버리니 얻으셨는가
 침묵도 또 다른 말이고
 허공이 만상이네
 당초 문양의 연민, 너도
 신털이봉 쌓였던 모래로 해탈하라며
 나를 흔들어 깨우는
 봄날 바람으로 회향하시네
 흩어지네
 팔각귀꽃에서 함장하고 하늘로 비천하던
 산벚꽃잎도 개사리천에서 등등
 하얀 잎잎이 천년 참선 중.

〈국보사랑 시집 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김유선시인은... 경기 용인 출생, 1983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시집 〈농친 마음 찾기〉 〈빈집〉 등.

조계종, 美 뉴욕서 첫 해외교구장 진산식

초대 美 동부해외특별교구장 휘광 스님, "해외포교 큰 결실 이룰 것"

조계종 최초의 해외특별교구가 설립돼 첫 교구장 진산식을 봉행했다. 2011년 8월 9일 교구 설립, 같은 해 10월 18일 교구장 휘광 스님 임명에 이어 반년여 만에 해외교구가 설립됐다.

조계종 미국 동부 해외특별교구는 1월 8일 美 뉴욕 소재 불광선원에서 초대 교구장 휘광 스님(불광선원 주지)의 진산식을 봉행했다.

진산식에는 총무부장 영담 스님, 해외특별교구장 휘광 스님,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정범 스님, 현각 스님(現 독일 포교활동중)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초대교구장 휘광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미동부 해외교구 설립으로 그동안 해외에서 홀로 외로이 사찰을 건립해 포교에 혼신을 다해 온 미주 지역 스님들이 함께 협력하고, 종단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앞으로 해외교구를 통해 1.5세대와 2세대 교포와 미국 현지인들의 출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한국불교의 국제화에 큰 동량이 되도록 지원

하겠다"며 "1700여 년의 한국불교를 돌이켜 볼 때 미동부 해외특별교구의 시작은 한국불교 국제화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치사를 대독한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영세한 사찰 규모, 교포 중심의 해외포교 활동 등 그간의 관행과 시스템이 문제였다"며 "조계종은 한국불교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수 년 간의 활동과 지력을 바탕으로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해외교구를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담 스님은 "한국불교 세계화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미동부 해외특별교구가 교두보가 될 것이며 휘광 스님은 첫 항해를 시작하는 해외특별교구의 항해사 역할을 제대로 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현각 스님은 "조계종이 처음 공식적으로 한국불교 전통·교육을 해외에 여법하게 전달해 줄 시스템·행정을 시작한 뜻 깊은 자리"라고 축하했다.

진산식에서는 미동부 해외특별교구를 이끌어 갈 소임자에 대한 임명장이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동부 해외특별교

구 고문으로 경암 스님(보림사), 도범 스님(문수사), 법장 스님(화엄사), 원영 스님(보리사), 혜성 스님(백림사) ▷부교구장에는 지광 스님(원각사) 선묵 스님(연곡사) ▷특별자문위원 대성 스님(불광선원) ▷총무국장 문중 스님(불광선원) ▷교무국장 연경 스님(해안정사) ▷포교국장 석담 스님(정아사) ▷호법국장 현해 스님(보현사) ▷교구장 특보 해민 스님(불광선원)이 임명장



1월 8일 진산식을 가진 조계종 美 동부해외특별교구장 휘광 스님은 종단과 유기적 관계를 갖고 한국불교 세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美 동부 16개주 · 加 동부 6개주에 한국불교 전통 전할 시스템 구축

을 받았다.

또,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총무부장 영담 스님을 통해 한국불교 세계화와 미주지역 포교를 통해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대해 석담 스님과 고병희 회장(뉴욕청성년 재단어머니회)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진산식 후 미동부 해외특별교구 교역직 스님들은 "미국동부 해외특별교구 현판식"을 봉행 후 제1차 교구 총무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뉴욕 듀크 오션 그릴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교구장 휘광 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 스님, 교구 총무원 등 5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미동부 해외특별교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미동부 교구 불자들은 "종단이 해외교구에 신도증 발급, 경전·사경문·한글학교·불교방송 등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미국 동부 해외특별교구는 미국 동부지역 16개주와 캐나다 동부지역 6개주 사찰에 대한 일반 행정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조동섭 기자

"종단 화합과 기강확립 화두로 정진하라"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신년유시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이 신년하례를 통해 종단화합과 종단기강 확립 등을 강조한 유시를 1월 12일 순천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봉행된 임진년 신년하례법회에서 내렸다.

혜초 스님은 "첫째는 종단의 화합, 둘째는 파사현정의 서원으로 종단을 바로 잡는 것. 마지막으로 종단의 기강의 확립해야 한다"며 "종도들은 이 세 가지를 화두를 삼아 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스님은 "한 생각의 생각을 해보니까, 1년 365일이 지나면 또 다시 새해가 다가온다. 이렇게 멈출 줄 모르는 수레바퀴 같은 시간과 넓고 끝없는 법관 같

은 공간, 그 사이에서 우리 인간은 존재하고 있다"며 "시방(十方)인 공간과 삼세(三世)인 시간은 어느 누가 부른 것도 아니며 무엇이 보낸 것은 더욱 아니니 임진년 새해에도 뜻하는 바 성취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종정스님의 법어에 앞서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60년 만에 온 흑룡의 해를 맞아 승천하는 용의 기운처럼 힘차게 종단의 위상을 드높이고, 안으로는 튼튼히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되자"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혜초 스님을 비롯해 원로회의 의장 설봉 스님, 총무원장 인공 스님, 종회의장 도산 스님 등 종단기관장과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관음종 중앙총회 및 신년하례

관음종(총무원장 흥파)는 1월 9일 총무원에서 중앙총회를 열고 2012년도 예산 38억9000만원을 의결했다.

또, 올해 사업계획으로 ▷개산조 태허 조사 108주년 기념 학술대회 ▷서울불교

문화대학 커리큘럼 조정 ▷외국인 템플스테이 중점육성 ▷국제보살계 봉행(4월 4일) 등 안건을 결의했다.

한편, 관음종은 중앙총회에 앞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조동섭 기자



"대승적 협력에 감사"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안을 3월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1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유영숙 장관은 "조계종의 대승적 협력으로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안 고시를 3월 중 마무리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해 4월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박기범 기자

총지종 효강 종령 재추대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지성)이 1월 12일 승단총회를 열고 현 효강 종령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효강 종령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중앙교육원장, 법장원장, 통리원장 및 불교TV, 불교방송 이사 등을 역임했다. 박기범 기자

성월 스님, 용주사 총회의원 당선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총회의원에 단독 입후보한 성월 스님의 당선이 확정됐다.



스님은 1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격심사를 통과하고, 12일 용주사 관음전에서 열린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됐다. 조동섭 기자

창당결성공고

선진한국당

1. 깨끗한 정치풍토를 위하여
2. 아름다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3. 선지한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 12월 12일 선관위에 결성 신고하고
 참신한 국가관과 민족부흥 건설에 앞장 설 우수한 인재를 찾고자 합니다.
 뜻있는 분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선진한국당 전화 : 02)732-0797 / 010-8928-9587 / FAX : 2201-1163